

2022학년도 2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 문학적 글쓰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글쓰기의 수행성에 대한 고찰

---

글말특강 2회차\_김남혁 교수님

## 노근리 사건: 영화 <작은 연못>

---



영화 <작은 연못>의 트레일러 영상

## 노근리 사건: 최초의 학살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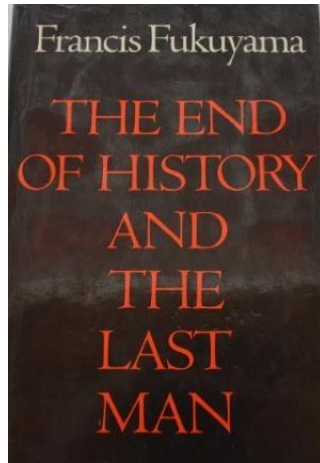
---

"노근리(老斤里:일명 老隱里)사건이라 함은 미국 4,5명이 영동지구 주곡리(主谷里), 임계리(林溪里) 등의 주민 약 500-600명에게 피난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구실로 국도를 따라서 걸어 노근리 지역까지 이르게 하고, 기차길 위로 이끌어 소지품을 세밀히 검열하고 미군병사가 무전 연락을 취한 직후, 띄약별 아래서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그 피난민들을 향해서 갑자기 남쪽에서 날아온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고, 그 폭격을 피해 철로 밑에 떨어진 두 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4일간 기관총 총질을 가하여 또다시 살상을 저질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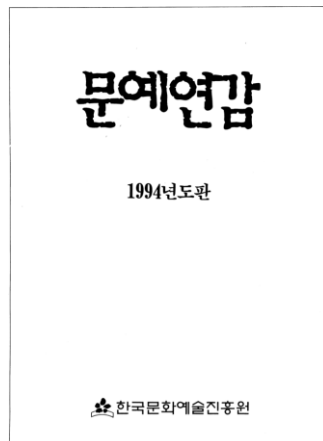
(최병수, 정구도, 『6.25 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인문학연구』, 1999.2.)

---

# 1990년대 세계 정세와 한국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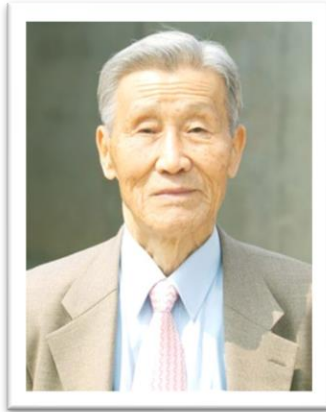
"Japa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fostering the spread of economic liberalism throughout Asia, and hence in promoting political liberalism as well. (...) Here again we see the victory of the idea of the universal homogenous state. South Korea had developed into a modern, urbanized society with an increasingly large and well-educated middle class that could not possibly be isolated from the larger democratic trends around them.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seemed intolerable to a large part of this population that it should be ruled by an anachronistic military regime (...)"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소설적 경향으로 자리잡았던 분단문제에 대한 소설적 접근 자체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첨예한 문제의식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최근의 개방화 추세와 탈이념적 경향을 놓고 본다면, 분단소설 자체가 막다른 국면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권영민, 「문학 총괄 : 이념의 해체,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 보여줘」, 『1994년도 문예연감』)

# 정은용과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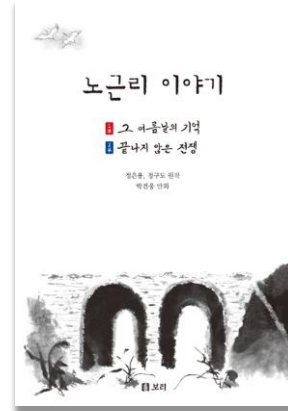


- 故정은용(1923-2014) 노근리 사건 대책 위원장
  - 1977년 11월 「버림받은 사람들」, 『한국문학』 신인문학상 투고 : 탈락
  - 1985년 MBC에 노근리 사건을 다룬 드라마 투고 : 탈락
  - 1994년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출간
- “정은용 선생은 30년 넘게 자신이 간직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대(大)기자이다.” : 월간 <말> 오연호 기자
- “이 소설은 지금껏 결코 씌어진 적이 없는 작품의 서문이다.” : 문학연구자 김화선
- “이 소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유는 역사에 묻혀져 잊힐 뻔한 전쟁 중의 만행을 문학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이다.” : 문학연구자 장경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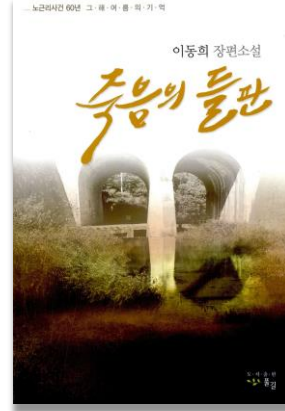
# 2000년대 다시 주목된 노근리 사건



아동문학,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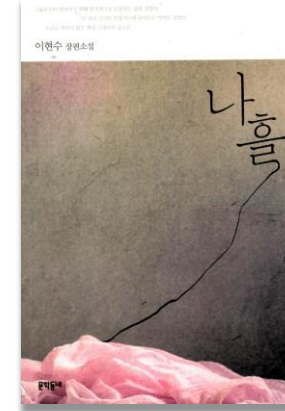
만화,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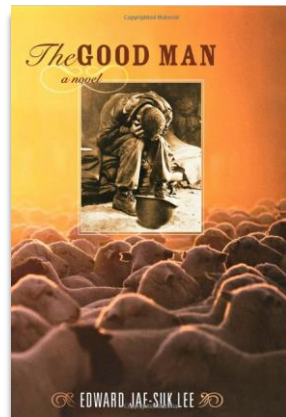
소설,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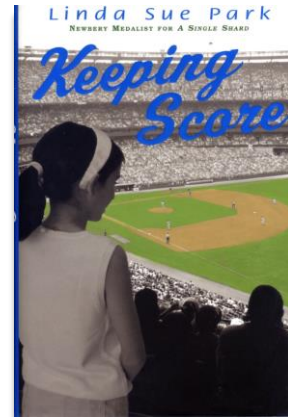
영화, 2009



소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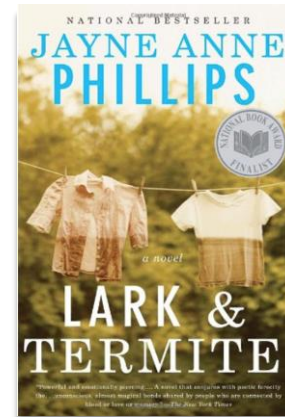
미국소설, 2004



미국소설,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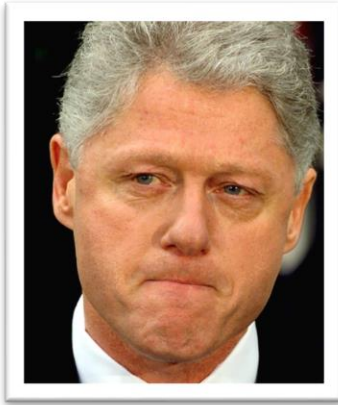
번역, 2009



미국소설, 2009

#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성명서

---



"<sup>(1)</sup>I deeply regret that Korean civilians lost their lives at No Gun Ri in late July 1950. (...) <sup>(2)</sup>Although we have been unable to determine precisely the events that occurred at No Gun Ri,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concluded in the Stat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at an unconfirmed number of innocent Korean refugees were killed or injured there. (...) I sincerely hope that the memorial the United States will construct to <sup>(3)</sup>these and all other innocent Korean civilians killed during the war will bring a measure of solace and closure."

"본인은 지난 1950년 7월 하순 노근리에서 한국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sup>(1)</sup>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비록 노근리에서 발생한 <sup>(2)</sup>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었으나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발표문을 통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고한 한국인 피난민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 본인은 <sup>(3)</sup>이들을 포함한 전쟁 중에 살해된 한국의 무고한 민간인 모두를 위해 미국이 건립하는 추모비가 어느 정도의 위안과 함께 사건의 종식을 가져오길 진지하게 희망한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성명서 중 일부, 2001.1.11.)

## 다시 망각하게 만들기

---

1. **"깊은 유감"**: 사과는 화가난 상대에게 사과가 만족스러운지 또는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답변을 요구하지만, 유감은 노근리 피해자들이 클린턴과 미국 정부의 조사 행위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노근리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이자 부수적인 피해로 이해하게 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
3. **"이들[노근리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쟁 중에 살해된 한국의 무고한 민간인 모두를 위해"**: 노근리 사건을 전쟁 일반의 문제로 확대시킨다.



# 린다 수 박(Linda Sue Par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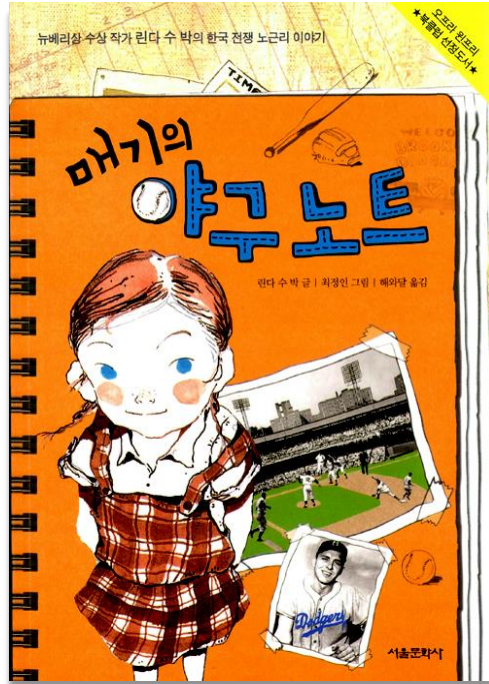


- 린다수박(1960~현재)
- 1960년 미국의 한국인 이민 자녀로 일리노이에서 태어남.
- 1999년 아이들을 위한 소설 <Seesaw Gir(널뛰는 아가씨)> 발표
- 2001년 <A Single Shard(사금파리 한 조각)> 발표
- 2002년 뉴베리 문학상 수상
- 2008년 <Keeping Score(매기의 야구 노트)> 발표
- 홈페이지: <https://www.lspark.com/>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살바[린다의 소설 *A Long Walk to Water*의 주인공] 이야기에 몰입했고, 또 것처럼 행동했던 독자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힘을, 즉 세계의 불공평한 질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문학이 세계를 구할 수 있나요?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은 아이들은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린다 수 박의 TED 강연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40xz0afCjnM>)

# 글쓰기, 기도하는 마음



## 1) 9살매기의 성장 소설

: 흑백논리를 넘어서는 현실/상처받은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까

## 2) 나의 선택이 타자에게 영향을 준다: 윤리

: 짐아저씨를 위해 윌리를 응원하지 않는다; 야구 노트를 만든다

## 3) 보편적 차원의 평화주의

: 노근리사건을 전쟁 일반의 문제로 확대한다

## 4) 위로의 한계

: 타인을 상처 입힌 제도는 변하지 않는다

문학적 글쓰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미학적 완성도와 텍스트의 수행성

Stories Worth Spreading

타인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혹은 정치는 윤리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